

▶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

I 문학의 본질

*사랑 (30문제)-----	1쪽
*고향 (45문제)-----	10쪽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사과를 먹으며 (31문제)-----	30쪽
*봉산탈춤 (43문제)-----	42쪽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31문제)-----	68쪽
*사평역 / 사평역에서 (26문제)-----	83쪽
*예덕선생전 (32문제)-----	94쪽
*서로에게 길들여진다는 것 (12문제)-----	108쪽
*여백을 위한 잡담 (18문제)-----	115쪽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주몽 신화 (31문제)-----	123쪽
*국수 (33문제)-----	138쪽

◆빠른 전체 정답-----	154쪽
◆해설-----	156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학기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내신 기출 문학 창비-상편 ◀

창조의 숲 인생의 원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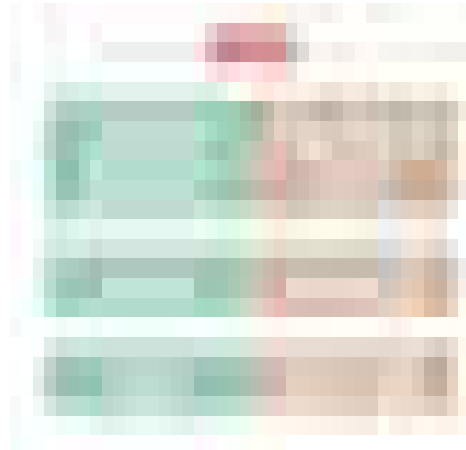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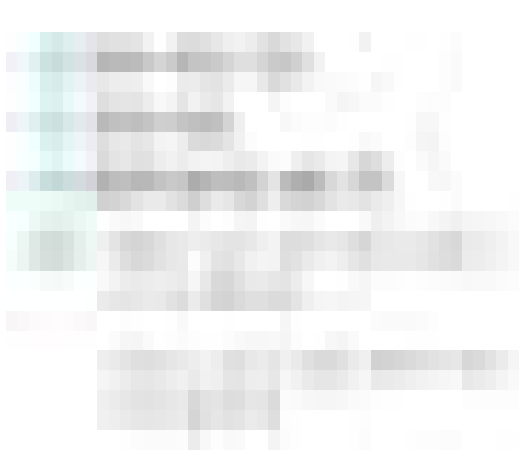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고사 () 과목에서 () 점 득은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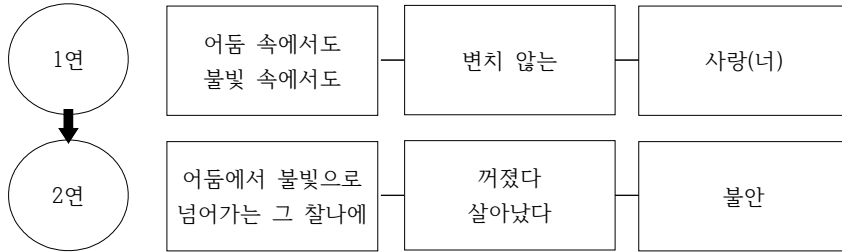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사랑” 품격 정립



“사랑” 학습 활동 문제

1 이 작품의 1연과 2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 보자.



2 1번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화자가 ‘너의 얼굴’을 ‘불안하다’고 표현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면,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과정에서 “너의 얼굴”은 “꺼졌다 살아났다” 하기에 불안감을 준다. 자신의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과정이 늘 똑같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화자 역시 ‘너’로 인해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지만, 찰나의 변화 속에 드러나는 낯선 “너의 얼굴”에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3 다음은 이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세 학생들의 대화를 참고하여 ‘지유’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짐작해 보자.

도은: 1연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변치 않는”이라는 표현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민준: 음, “금이 간 너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보면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하는 것 같은데.
재형: 글썄, 변치 않는 사랑을 부정한다기보다는 변치 않는 것, 변하는 것 모두 사랑의 과정이란 뜻이지 않을까?
지유: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난 이 시에서 “금이 간 너의 얼굴”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얼굴을 뜻한다고 생각해.

4 다음 글을 참고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드러난 ‘사랑’의 상징성을 이야기해 보자.

김수영은 6·25 전쟁으로 북한군에 징집되기도 하고 부산 포로수용소에도 수용되는 등 격변의 역사를 경험했다. 전쟁 이후 시 쓰기와 번역에 전념하던 그는 이승만 독재에서 4·19 혁명으로 건너가는 현대사를 통과하며 사랑과 혁명을 노래한다. 「사랑」은 고난과 희망의 역사적 교차 속에서 전개된 4·19 혁명 직전에 쓰인 작품으로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 그의 삶에서 사랑의 순간은 생명의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이 시의 ‘너’는 일차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작품의 의미를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확장해 본다면 한 개인이 끌어안고 변화시키며 살아 내야 하는 사회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을 넘어,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역사적 사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김수영, '사랑'

효문고등학교 (서울)

1. 위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도치 구문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 ④ 의미의 대응 구조를 통하여 사랑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통하여 사랑의 이미지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효문고등학교 (서울)

2. <보기>는 윗글을 읽은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다. 시를 바르게 감상하지 못한 사람은?

<보기>

홍민: 1연에서는 사랑의 불변성을 노래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혜: 그래. 1연에서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면 2연에서의 불안감은 사랑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
시경: 그렇다면 사랑은 불변성과 더불어 불안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말이군.
혜진: 맞아. 3연의 '금이 간 너의 얼굴'에서 화자는 균열 속에서 깨닫는 사랑의 역설을 발견한 거지.
성용: 이 시가 4·19혁명 직전에 쓰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적 사랑과 역사적 사랑을 절묘하게 통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① 홍민 ② 지혜 ③ 시경
- ④ 혜진 ⑤ 성용

풍암고등학교 (광주)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경미: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를 많이 사용해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 같아.
광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사랑'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
경미: 글썽, 사랑이라고 하면 그 대상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은 구체적인 존재가 떠오르는데, 이 시를 읽으니 '사랑'의 범위가 그보다 훨씬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광자: 나도 그렇게 느꼈어.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지만, 때로는 부정적 감정도 생겨나잖아. '사랑'은 고통과 아픔을 포함하는 것이자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닐까?
경미: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럼 (㉠)도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랑'이 될 수 있겠다.

- 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학생이 항상 긍정적인 것
- ② 분단과 독재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를 얻는 것
- ③ 격동의 사춘기를 겪으며 청소년이 어른이 되는 것
- ④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창작의 고통을 겪는 것
- 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연인이 다툼과 위기를 겪는 것

풍암고등학교 (광주)

4. ㉡에 나타난 표현 기법이 모두 사용된 것은?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③ 눈은 살아 있다 /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 ④ 임은 물같이 까딱 않는데 / 파도야 어찌란 말이나 / 날 어찌란 말이나
- ⑤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 쪽도 짚검볼도 가락늪도 머리카락도 형값 조각도 막대 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짓도 타는 모닥불

서령고등학교 (충남)

5. ㉠을 통해 드러내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지 두 어절로 쓰시오.

서명고등학교 (충남)

6. 위 시에서 반복 사용된 ㉠을 통해 작가가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서술하시오.

하남고등학교 (경기)

7.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어조가 변하고 있다.
- ③ 1연과 2연에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 ④ 반복과 생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제목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그러나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불안하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김수영, '사랑'

가좌고등학교 (경기)

8. 위 시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는 불변적 사랑의 대상이다.
- ② '사랑'은 '찰나'의 순간 '금'이 가는 '불안'한 존재이다.
- ③ '너'는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변화와 이행의 과정을 맞는 대상이다.
- ④ '금이 간 너의 얼굴'에 드러난 불안함을 통해 사랑을 배운다는 역설이 드러나 있다.
- ⑤ '번개'는 '찰나'와 연결하여서는 아주 짧은 순간으로, '금'과 연결하여서는 파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강원)

9. ㉡의 상징적 의미를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0. 위 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접속부사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 있다.
 ㄷ. 의미의 대응 구조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ㄹ. 대상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1. 위 시의 1연과 2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연> - 어둠 속에서도 - (㉠) - 사랑
 ↓ 불빛 속에서도
 <2연> - (㉡) - 꺼졌다 - (㉢)
 살아났다

- ㉠:
- ㉡:
- ㉢:

경남여자고등학교 (부산)

12. 위 시의 주제와 성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1. 주제의 마지막 부분을 명사로 제시할 것.
- 2. 성격은 두 개를 적을 것.

28.②

▶응, 헛갈리지 마!◀

연민 vs 미안함 (★★)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미안함: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보통 후회나 반성을 동반)

29.①

▶시간의 흐름은 없음.

▶놓어둬, 패턴 공략◀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현은 <오전-오후-밤, 아침-저녁-새벽, 봄-여름-가을-겨울, 얼마 뒤>등과 같은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있기 마련이다. 순서(하나, 둘...)나 수량(하나, 둘...)과 관련된 말은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음에 주의하자.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자문자답)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32.④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에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냄.

II 사평역 / 사평역에서

1.②

▶'청색의 손바닥'처럼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고달픈 삶의 모습을 드러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엇금엇금, 슬금슬금)

2. 공간의 이동 VS 시선의 이동 (★★)

ㄱ.공간의 이동: 화자가 직접 이동

*푸른 강을 건너 높은 산을 올라가도 내 마음은 허전하다.
이동: (강→산)

ㄴ.시선의 이동: 이동하지 않고 고개만 움직임.

*하늘은 맑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뛰놀고 옆에서 자는 친구를 보니 내 마음이 평화롭다 (원경→근경)

*내 마음이 평화롭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마당에서 강아지는 뛰놀다. 하늘은 맑고 푸르다 (근경→원경)

3. 도치법:

일반적인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꿔 강조하는 표현법.
(사과를 먹다 → 먹다 사과를)

4. 영탄법:

감탄사 '아, 오, 아아, 오호라, 어즈버' 등을 사용하거나, 호격조사 '아, 야, 이여, 이시여' 등과 감탄형 종결어미 '-아라 /-어라, -구나, -는가' 등을 사용하여 강하고 깊은 감정을 드러낸다.

5. 관조적 태도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으로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대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주관적 심리(감정, 정서) 상태가 개입 되어 있으면 관조적 태도라고 보고 어려움

2.⑤

▶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 의미를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국화 옆에서>: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아름다움
- ② <성탄제>: 아버지의 정성과 사랑에 대한 그리움
- ③ <겨울바다>: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는 의지
- ④ <흔들리며 피는 꽃>: 시련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의 의미
- ⑤ <별 헤는 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였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 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4.④

▶(가)는 '나'의 시선을 통해, (나)는 역장의 시선을 통해 서술되어 있기에 ④가 적절함.

▶응, 헛갈리지 마!◀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낯을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자조적>은 후회, 한탄, 체념, 능력 부족,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와 어울린다.

5.①

▶(가)의 서술자는 '나'인 것인 반면에, (나)의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임.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문학 배경의 종류 (★)

- ㄱ.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 ㄴ.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 ㄷ.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 해당 심리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냄.

▶응, 헛갈리지 마!◀

애상적 (★):

-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 (○)
- 사랑스러운 감정 (×)

7.③

▶역장이 상황을 경험하며 떠올리는 생각을 서술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 의식의 흐름 기법(자동 기술법) (★):

자기가 겪은 일, 그 일을 통해 떠오르는 과거의 경험, 생각, 느낌 등을 떠오르는 그대로 써내려 가는 것.
(1인칭 시점, 내적 독백)과 관련됨.

8.②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의 심상과 감각 (★★★)

- ㄱ. 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 산, 높은 하늘, 빨간 꽃)
- ㄴ. 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 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 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 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2. 공감각 vs 복합 감각 (★★)

- ㄱ. 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 ㄴ. 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시 문제에서 <감각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면, 위와 같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9.①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화자의 감정 환기함.

<설야>

- *주제: 눈 내리는 밤의 추억과 애상감
- *해제: 이 시는 1930년대 모더니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으로, 눈 내리는 밤의 정경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 시는 눈 내리는 밤의 정경이나 눈의 모습을 다양한 이미지(심상)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통해 회화적이고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밤중 뜰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는 행위를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있다고 표현하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먼 곳에 있는 여인이 옷을 벗는' 것처럼 사각사각하는 소리를 내는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밤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추억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화자는 뜰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서글픔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눈을 '그리운 소식, 서글픈 옛 자취,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싸늘한 추위' 등의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화자는 눈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추억에 젖게 되고, 그 추억으로 인해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넣어둬, 패턴 공략◀

<내적 독백>은 대개 속마음의 표지인 작은 따옴표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2. 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슷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해당 없음.

10.③

▶[A]와 ③은 고단한 일상을 묵묵히 수용해야하는 것이 유사함.

◆주제 저장소◆

- ① <완화삼>: 유랑하는 나그네의 삶과
- ② <산에 언덕에>: 그리운 이가 추구하던 소망의 실현에 대한 염원
- ③ <저문 강에 샅을 씻고>: 가난한 노동자의 삶의 비애
- ④ <추일 서정>: 가을날의 황량한 풍경과 고독감
- ⑤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봄의 맑고 순수한 생명감

11.④

▶인물 사이의 갈등은 없음.

12.④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아닌, 고단함을 보여줘야 함.

15.⑤

▶보이는 대로 서술하는 것이지, 인과 관계에 중점을 둔 건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주로 인물의 <회상>이 있을 때에 해당된다

17.⑤

▶삶의 애환을 나타내는 전체 분위기에 비추어 ⑤는 적절치 않음.

▶넣어둬, 패턴 공략◀

계절감 (★)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18.③

▶삶의 애환을 나타내는 전체 분위기에 비추어 ③은 적절치 않음.

19.④

▶ㄱ: 쓴 약 같은, 단풍잎 같은 ㄷ: 짝짝짝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4.③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를 통해 알 수 있음.

II 예덕선생전

1.④

▶엄 행수에 대해 자목은 부정적이며 선굴자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④가 적절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문학에서의 '입체적~' 총정리

- ㄱ. 입체적 서술(입체감 부여): 한 대상으로 둘 이상의 각도 (관점, 입장, 시간, 공간, 감각)에서 바라보는 것.
- ㄴ. 입체적 구성: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현대 소설, 특히 심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남)
- ㄷ. 입체적 인물: 성격이 큰 틀이 변하는 인물.

2. 회화 (★)

:익살맞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비유.

2.⑤

▶㉔: 따뜻한 인간애가 아닌,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엄 행수'의 삶을 예찬함.

▶응, 헛갈리지 마!◀

우의적 vs 우회적

- ㄱ.우회적: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 ㄴ.우의적: 우회적 표현적 주로 비유를 사용하여 돌려 말하는 것.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